

종합·해설

단일화 국면 속 민주 인사들 대거 광주행

“文지지” 절박한 ‘호남 구애’

박영선·추미애 “정권교체, 균형발전·인재등용 전환점”

권노갑·임재정 “호남 민심이 후보 단일화 결정적 역할”

민주통합당이 아권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7일 ‘덧밭’인 호남 공약을 위해 중앙당 선대위 관계자와 구 민주계 인사들까지 대거 광주로 출동해 지역균형발전, 인재등용, 지역민과의 소통을 약속하며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과 추미애 국민통합위원장은 “호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다”면서 ‘절박함’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호남 구애’에 ‘올인’했다.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지역 ‘희망 투어’를 시작한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개혁의 구심점인 민주당은 광주의 지지 없이는 어렵다”며 “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지지를 못 받는 것은 심장기능이 떨어진 것과

같다”며 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작은 기득권에 집착해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마음의 통증을 앓는 지지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기까지 광주·전남의 힘이 컸다”며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바라는 DJ 정진계승과 정치체신을 민주당이 실천하지 않으면 단일화의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후보 단일화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광주·전남 지역민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교체를 통해 호남 균형발전과 인재등용에 신경을 쓰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인사 불균형은 그 다음 인사에도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며 정권교체를 통한 인사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대구·경북, 부산·경남지역 출장을 가다 보면 우리나라는 교통수단에서 도 지역적으로 차별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호남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04년 이후 많은 선거를 치러왔는데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처럼 호남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호남에 대한 많은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고, 지역 정책 공약 중 부족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통과 통합·지

역발전 특별대책위원회’도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기 민주개혁정권 창출로 지역발전과 경제발전의 혁명을 이루자”며 “문재인 후보를 통해 소외와 저항의 땅 광주·전남을 창조와 생산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권노갑 상임 고문과 김옥두 전 국회의원 등 구 민주계 인사들을 비롯 임재정 전 국회의장, 조영택 전 국회의원, 정찬웅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계호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처럼 구 민주계 인사를 비롯한 중앙당 선대위 관계자들이 대거 광주에 내려와 지지 호소에 나선 것은 아권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호남 민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권후보 단일화 정국에서 호남의 민심은 절대적인 비중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두 후보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투표시간 연장하고 투표 참여하자

광주·전남대학생연합회 소속 대학생들이 7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광장에서 18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광주선언을 하고 있다. (왼쪽) 양혜령 민주당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가 지지자들과 함께 7일 광주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나명주·최한기 기자 mjna@kwangju.co.kr

연말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아권 두 후보 간 단일화 합의에 나선 가운데 여·각 후보들은 보건·안보 등을 중심으로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7일 서울 의도 당사에서 국정자문위원회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 “(이번 대선은)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국민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단일화 이벤트로 민생위기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어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선진당과의 합당을 위한 전국위원회

대권주자들 이어지는 정책행보

박 ‘민생’ 문 ‘보건’ 안 ‘안보’

에 참석한 뒤 여성유권자연맹 행사에 참석해 돌봄 가정 아이들의 청년 멘토들을 격려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서남병원에서 “돈 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주제로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이날 경기도 광덕 공군작전사령부와 김포 해병 2사단을 잇따라 방문, “어떠한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도 결연히 국군을 통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영토·주권 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하고 전방의 안보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체 중단하겠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건강보험 관련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실현 ▲저렴한 보험 수가 보장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군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잘못된 군 인사관리제도를 바로잡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민주당 동구 보선 후보 주말계 확정

공심위 ‘후보 확정 후 공천 료 공개’ 방침…논란 일듯

민주통합당이 광주 동구청장 보결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 후보 확정 이후에 공천 료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유정아 민주당 공심위(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간사는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광주 동구청장 보결선거 공천 방법은 후보 확정 이후에 밝힐 예정”이라며 “최종 후보 확정은 이번 주말 전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간사는 이어 “컷-오프와 여론조사 실시 등의 구체적인 공천 료를 밝히면 오히려 논란이 커질 수 있어 이

렇게 결정했다”며 “국민에게 공천 료를 돌려주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광주선언에 걸맞게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보자 공천 확정 이후, 공천 료를 공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대다수 예비 후보자가 13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심위에서 경선 료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컷-오프를 통한 예비 후보자 압축과 여론조사는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 간사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

을 통해 “경쟁력 평가를 위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선 후보자를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쟁력 평가 방법으로는 여론조사가 유력하고, 13명의 예비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컷-오프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안팎에서는 공심위가 컷-오프를 통해 4~5배수 후보자를 압축, 여론조사로 경쟁력 평가를 실시해 밀봉 보관되어 있는 서류심사와 면접 점수 등을 합산해 후보자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 라운지

노희용, 文후보 문화수도 특위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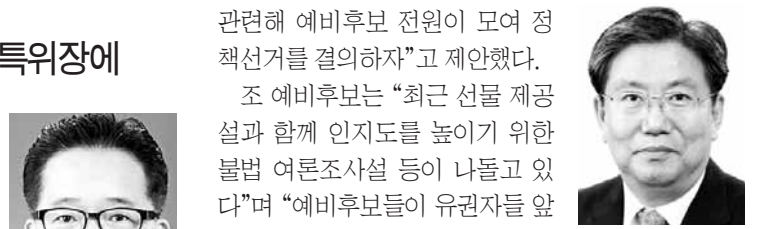
노희용 민주당통합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광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등 공직경력에 인정받아 ‘문재인 대선 후보 광주시 선대위 문화수도 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밝혔다.

노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구도심 공동화 해결을 위해 문화수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대선에 동구 지역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예술단체 관계자와 관련 학과 교수 등 각 부문별 문화계 인사들을 총망라할 계획”이라며 “특위에서 모아진 의견을 대선 정책에 반영시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진, 동구 보선 정책선거 결의 제안

조용진 민주당통합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불법·혼탁 조짐이 일고 있는 동구청장 보결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 전원이 모여 정책선거를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예비후보는 “최근 선출 제공설과 함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불법 여론조사설 등이 나돌고 있다”며 “예비후보들이 유권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법과 내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정책과 비전 제시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자”고 주장했다.

오형근 “주민교육 프로그램 실천할 것”

오형근 민주당통합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경선후보는 7일 “주민 간 정보 격차에 따른 소외감 해소를 위해 평생교육, 평생학습의 터전을 위한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문화산업 유관 프로그램 강화,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외국어(영어·중국어) 및 한문교육 활성화 ▲직업교육과 운영을 통한 직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 유도 등을 제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온 이정희 통진당 대선 후보

“빛·재해 없는 농어촌 만들겠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는 7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농기계 특별법으로 농어민의 걱정을 덜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농민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격·광·빛·생산비·재해 등 ‘5대 걱정’을 해결할 농업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당에서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주요 내용으로 국민 기초식량 보장법을 발의해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 중”이라며 “이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농민의 소득 보장·수매가 결정 참여를 실현해 ‘가격 걱정’을 덜겠다” 밝혔다. “땅 걱정”은 농지개혁 특별법 제정

을 통해 농지개혁을 이루고 농가 부채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생산비 걱정’은 농자재 원가 공개제·반값 농자재 실현으로, ‘재해 걱정’은 농어업 재해 보상법 제정·농어업 재해 보험공사 설치로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농림중앙회장 농민 직선제,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우리 민중 쌀 지급위원회’ 설치, 쌀 농업 직불금제 적용대상 확대, 농림 미곡처리장 국유화, 송아지 생산 안정제 복원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입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개인 출장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 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대출금리:연5.5%~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우신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리모델링전	부채현황	1년이자비용
농협중앙회	70,000,000원	4,600,000원
씨티은행	15,000,000원	2,100,000원
지역농협	10,000,000원	1,170,000원
상생카드론	9,000,000원	1,880,000원
다불유저축	8,000,000원	2,800,000원
SC저축은행	37,500,000원	11,200,000원
솔로몬 저축	15,000,000원	4,485,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7,800,000원
총부채	180,450,000원	36,035,000원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예시: 행정6급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리모델링후	부채현황	1년이자비용
농협중앙회	100,000,000원	6,750,000원
국민은행	40,000,000원	3,200,000원
씨티은행	50,000,000원	4,500,000원
총부채	190,050,000원	14,450,000원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2011-3430067-25-5-00028 주소: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경매투자

▶배우면서 수익 내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등 회비 550만원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액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